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현 승 건*

논문초록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폴 히버트가 제시한 문화의 여러 차원을 기독교 문화의 여러 차원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체험, 기독교 신앙,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원을 따라, 먼저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구원의 확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점은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하나님 중심적 요소를 망각하는 데에서 비롯하고 있다. 이렇듯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 중심으로 변질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부패와 무능을 반성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겸손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은 상실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차 현세적이고 기복적으로 변질되어 건물과 조직과 프로그램에 의존하면서 교회를 세속화하고, 관료화하며 중국적으로는 개교회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개신교 교회의 부패는 치유될 가망이 없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타락을 향해 종교적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속으로 점차 함몰되어가고 있다.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해 제시되는 신본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인간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부로 이해되어진다. 즉 인간이 주인공이고 인간의 활동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황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야 하며 그것은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본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동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체험을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교회 갱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회복사, 초문화신학

* 나가사키순교기념교회, 제이미션

2012년 01월 16일 접수, 03월 13일 수정, 03월 21일 게재확정

I. 들어가는 말

최근 교회의 갱신과 관련하여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기독교 세계관’의 오류가 오늘날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킨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심이다¹⁾. 또한 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자기신학(self-theology)’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²⁾. 과연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 개신교 교회는 ‘자기신학’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확립된 ‘기독교 세계관’과 ‘자기신학’은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른바 ‘세계관’이란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수납한 가치체계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이성이 동작용으로 그 주요한 관점에 따라 각기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지 ‘기독교 세계관’에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를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세계관들과 구별되며 때로는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승구교수는 그의 저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1)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2) 그 관점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파악한 모든 결과물을 뜻하는 말이다(이승구, 2005:

1) 내가 판단하기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사회 변혁 주체가 아니라 변혁 대상이 되고 있다. 성서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으로 보아도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계관의 시급한 과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누릴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 자체가 거룩한 문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김기현, 2003).

2)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패해 가고 있는가. 거듭 말하지만, 자기 신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세계 선교 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그 성장에 비해서 종교적 영성은 고사하고 윤리적·도덕적 영향력마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세계적 바울 신학자로 알려진 김세운 박사는 한국교회의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을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오해, 또는 신학의 왜곡과 천박성을 그 첫째로 꼽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기에 덧붙여 한국교회가 신학화에 대한 고민과 진통을 제대로 겪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과거 ‘토착화’를 고민할 때에는 타 종교와의 유사성과 상이점에 천착하여 그리스도교적인 주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이 없는 지금은 ‘복음의 샤머니즘화’가 광신적으로 진전되고 있어도 이를 분간할 영성과 지성을 다 잃어 버렸다(이만열, 2011).

255).”라고 설명하고 있다.

폴 히버트(Paul G. Hiebert)는 그의 유고작인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Transforming worldviews: An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how people change)]에서 “세계관이란 한 집단이 사물의 본질과 관련하여 형성하는 근본적인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전제들로 자기 삶을 정돈하는 데 사용하는 것(Hiebert, 2010: 31).”이라고 정의하면서, ‘성경적 세계관(biblical worldview)’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는 “성경적 세계관의 중심에는, 타락한 인간들을 죄의 결과와 그 현존으로부터 구출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Hiebert, 2010: 568).”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우주적 이야기와 인간 역사에 대한 견해를 그 중심으로 삼는다(Hiebert, 2010: 570).”고 설명하고 있다.

히버트는 또한 ‘초문화신학(meta theolog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서로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Hiebert, 1996: 314). 즉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던(post modern)시대의 비판적 상황화를 넘어서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특수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초문화신학’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Hiebert, 1997: 131).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문화들이 근거하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의 ‘변형(transforming worldview)’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Hiebert, 2010: 608).

히버트는 또한 ‘문화의 여러 차원’이라는 도표³⁾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경험은 신념과 정서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계관을 거쳐 가치로 이어지며, 의사결정을 거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인간 내부의 경험이 종교 또는 신념으로 발전하고, 여기에서 세계관이 확립되며,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제공하고,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는데, 이것이 곧 그들의 문화로 인식된다고 본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에서는 히버트가 제시한 문화의 여러 차원을 기독교 문화의 여러 차원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체험, 기독교 신앙,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원을 따라, 먼저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3) 문화의 여러 차원(Hiebert, 2010: 52)

경험들 → 신념/정서 → 세계관 → 가치 → 의사결정/행동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1. '기독교 신앙(Christianity)'의 인간에 대한 의존 증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이다. 이렇듯 체험을 통해 입증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적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조 되었으며,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봉사할 소명을 깨닫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며,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여 사후의 구원의 세계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얻어지게 되는데,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점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인격적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닌 인간 편에서의 편의주의적인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설교가 유행하고, 성례는 점차 간소화되거나 무시되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들의 나라를 위한 필요에 집중되어 기복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의 방향성과 기도의 목적성이 호도되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경험의 통로를 상실한 채 한국 개신교 교회는 점차 기독교의 체험적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인격적 체험이 상실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의존이 증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관심이 인간에게 집중되며 인간들의 필요에 몰두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인간적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바탕이 되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게 의존하는 '기독교적 신앙(semi-Christianity)'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기독교적 신앙'은 인간 의존적인 모습으로 굳어지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형식적인 용어로만 남게 된다. 이른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실종'이 발생하는 것이다(김은수, 2001: 367).

<표 1> 기독교 문화의 여러 차원

하나님에 대한 체험 → 기독교 신앙 → 기독교 세계관 → 기독교 가치관 → 그리스도인의 삶

2. 인간 중심의 '기독교적 세계관(semi-Christian worldview)'으로의 변질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이 현세를 넘어서서 사후의 구원의 세계로까지 그 관심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로 하여금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최종적인 관심을 사후의 구원에 집중하게 된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구원의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표 2 >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적 문화의 비교 모델

| 문화의 차원 | 기독교 문화 | 기독교적 문화 |
|--------|---|---|
| 신앙 | 하나님에 대한 체험 '기독교 신앙' 구원의 열망, 십자가의 신앙, 구원의 확신 | 인간에 대한 의존 '기독교적 신앙' 기복적, 인간의 만족, 인간의 필요 |
| 세계관 | 하나님 중심 '기독교 세계관' 신본주의, 신국적, 내세에 대한 관심 | 인간 중심 '기독교적 세계관' 인본주의, 현실주의, 현세에 대한 관심 |
| 가치관 | 하나님의 나라 지향 '기독교 가치관' 별세의 선언, 마음과 존경과 은혜를 추구 | 현실 세계 지향 '기독교적 가치관' 성공주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 |
| 삶 | 그리스도의 몸 '갱신된 교회' 초대교회의 신앙, 초문화신학, 일치된 교회 | 세상의 성공자 '부패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 개 교회화, 분열된 교회 |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점은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하나님 중심적 요소를 망각하는데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경험의 통로를 상실한 채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기독교의 체험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게 집중되어 자신들의 현실적 필요에 몰두하게 된다.

흔히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⁴⁾. 즉 세계관 속에 기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구별 없이 모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잘못 받아들인다. 이렇듯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한국 개신교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기독교적 세계관’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그 세계관 속에 사용하는 용어가 기독교와 관련이 있고 그 내용이 교회에서 통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는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과 인간 중심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3. 현세 지향의 ‘기독교적 가치관’의 지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체험을 하지 못해 사후 구원의 의미를 상실하고 인간 중심으로 변질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부패와 무능을 반성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겸손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Christian values)’은 상실되고, 인간의 육체적 만족과 행복을 지상목표로 추구하는 현세 지향의 ‘기독교적 가치관(semi-Christian values)’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게 된다.

인간들의 현실 세계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에덴의 욕망’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원래 사단이 하나님께 대해 품고 있던 반역의 근거가 되었던 허탄한 욕

4) ‘기독교적 학문’이란 것도 어쩌면 기독교와 관련된 소재를 다루거나, 기독교인이 수행하거나, 특정한 기독교적 함의를 수반하는 학문적 활동 정도로 고착되고, 궁극적으로는 학계의 하위 장르(sub-genre)나 집단 정도로—예를 들면,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수행하는 학문 활동—인식되고, 자리매김될 수도 있다. 이것은 ‘기세운동’이 내건 목표와는 거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일어나기 쉬운 현상이다. 한국의 ‘기세운동’은 이런 결과를 피해갈 어떤 전략이나 의식적 노력이 있는 걸까?(양희송, 2003)

망이었다. 사단은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였다. 결국 인간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사단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상에 속하게 되었다(Bavinck, 1983: 203-206). 그곳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사만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처럼 되고픈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지상에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들의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만으로 행복한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세속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겨난 에덴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원하였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였다(창 11: 3-4). 그들은 12가지 보석으로 견고히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여 벽돌과 역청으로 이 지상에 인간들의 바벨탑을 쌓은 것이다.

사단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마음껏 움직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세 가지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 이른바 '사단의 삼종신기⁵⁾'인 돈과 명예와 권력이다. 이러한 세 가지 도구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인간이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현세 지향의 세속적이고 악마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독교 가치관'은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4. 부패한 '기독교적 문화(semi-Christian culture)'의 확산

(1) 교회의 세속화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이 상실되고, 인간의 육체적 만족과 행복을 지상목표로 추구하는 현세 지향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면서, '기독교 문화(Christian culture)'는 점차 현실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건물과 조직과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기독교적 문화'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5) 삼종신기(三種神器)는 곡옥과 구리거울 및 청동검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 텐노의 상징으로 여겨져 신성하게 숭배되어지고 있다. '사단의 삼종신기'는 이에 빗대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하여 인간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를 비유한 것이다.

있다⁶⁾. 따라서 현세 지향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초래한 부패한 ‘기독교적 문화’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속화하고 관료화하며 중국적으로는 개 교회화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한 ‘기독교적 문화’가 세속주의, 관료주의, 개 교회주의를 통해 오늘날 여러 가지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점들을 양산하게된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심판과 구원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외치며, 사후 세계에 대해 설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광대한 교회건축과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의 확장 그리고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을 갈망하며 현세구복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교회의 직분은 점차 관료화하여 세속권력화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채용한 교회정치는 다수결이라는 강력하고 거부불능의 수단을 사용하여 폐쇄적인 개 교회를 완성하고 있다. 결국 교회 내에서 점차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되고 인간들의 야합과 다수결의 폭력 속에 사회법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개 교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성장한 개 교회는 자신들이 이룩한 바벨탑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타 종교와의 화해와 연합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세 지향의 ‘기독교적 가치관’의 인본주의적인 경향으로 타종교의 실체를 인정하는 종교적 혼합주의와 기독교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하는 종교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므로 타락의 길을 향해 치닫게 된 것이다.

(2) 목회세습에 대한 논란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목회세습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에는 세습에 관한 모델이 몇 가지 발견되어지는데,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다. 엘리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마가 요한이 있었으며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모두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는 아니었다. 심지어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조차 온전한 의미의 아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부자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후계자들은 그들의 스승을 아버지같이 따르고 장년에

6) 국내에서 “기독교적 OO”을 말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대중음악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과거의 찬송가 위주의 교회 음악에 반기를 들고, 동세대와 교감하는 음악을 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던 CCM가수나 그룹들은 결국 무엇이 ‘기독교적’ 대중음악이냐는 데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어놓지 못했다. 물론 가장 안전한 것은 ‘기독교적 가사’를 쓰는 경우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연주음악이나, 기독교적 소재나 표현을 쓰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기독교적’이라고 부를 적절한 판단기준이 없게 된다. 또, ‘기독교적 가사’를 사용하더라도 그 가사를 전혀 영똥한 맥락에 배치시킴으로써 ‘반기독교적’ 효과를 얻어내는 것도 가능하다(양희승, 2003).

결쳐 배웠으며 그 후계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였다. 즉 목회세습은 혈연의 유무를 떠나 이미 부자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혹시 그것이 혈연관계를 통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 목회세습이 비난받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그것은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전임자가 자신의 목회를 이어받아 계속할 후계자를 선정할 때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지않은 것을 예견하면서도 단지 혈연이기 때문에 자식을 후계자로 선정하는 경우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막대한 재산과 권력의 이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생활보장이 안 되는 가난한 교회의 목사가 자신의 아들을 목회 후계자로 삼는다면 비난은 커녕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쌓아온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서 보존하기 위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혈연에게 후임을 맡기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리한 목회세습을 위해 교회는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교회 공동체의 자주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목회세습의 진정한 문제점은 혈연으로 목회를 세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결정에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적 다수결의 횡포를 자행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회세습에서의 문제점은 후임목회자 청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임목회자가 자신의 후임으로 청빙되는 목회자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특별한 조건의 대우를 강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후임목회자 청빙은 민주적 다수결이라는 횡포로 교회 내에 세력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켜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목회의 터전을 스스로 황폐케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3) 교인의 수평이동

요사이 교회들 사이에 교인의 권징과 이명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할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교회를 바꾸는 시대가 되었다. 이른바 '지역교회의 붕괴현상'이다. 동일한 지역에 이미 교단의 구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들어서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교회가 자신에게 유익한지 교회들을 순회하며 고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른바 '교회의 쇼핑시대'가 된 것이다(정숙희, 2007: 38).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점차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사로 인해 불가피

하게 교회를 옮겨야 할 경우에는 재적 중이던 교회의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같은 교단의 해당 지역교회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담임목사의 지명도, 교회 시설의 완비, 프로그램의 구비, 친교의 확장 등을 고려하여 이해타산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역교회의 붕괴는 교회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이다. 교인의 이동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권징을 포기하고, 다른 교회의 교인이 이동해 올 경우에는 이명을 상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교인에게 굴복한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양적 성장을 지상과제로 삼은 결과이다. 교인의 숫자는 그대로 교회의 현금과 연관이 있고 그것은 목사의 사회적 신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위 ‘목사의 계급화’가 이룩된 것이다.

(4) 교회의 비대화

성장한 한국 개신교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여 말할 때, 전도는 말과 문화가 동일한 지역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하며,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의 개념이 바야흐로 한국 개신교 교회의 성장 비대증을 초래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가 된 과도 성장의 이유가 전도의 개념과 선교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으로 오히려 언어와 문화의 구분을 넘어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15).”고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 8)”고 명령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제자들의 복음전도 사명을 말씀하신 것인데,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개인적인 복음전도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복음전도와 달리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인 교회에 주신 집단적 사명을 의미한다. 선교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회의 성장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교회의 증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비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전도에 의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교회 성장의 전부라고 이해하게 되어 결국 교회의 비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교회 성장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교회의 설립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전도에 힘입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사역자를 양성하며 헌신된 사역자들을 파송하여 새로운 교회 증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현승건, 2008: 227-228).

III.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

1.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립(Tozer, 1975: 133-137)

(1)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주변의 사람들과 인간적 관계를 맺고 이에 의존하여 생활하게 된다⁷⁾. 인간의 사회적 의존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며 그리스도인 역시 인간적 사회 조직의 의존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 그리고 사회적 의존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체험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때로 모든 인간적 고리에 대한 의존을 끊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마 6: 6).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에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인간적 밧줄의 실타래가 모두 끊어지

7)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문명화 이론의 결론에서 “인간 결합태의 구조와 인간 상호의존성의 구조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면, 또 모든 개인의 실존에 토대가 되는 인간의 공존이 이런 식으로 서로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마음의 평형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능한다면, 이 때 비로소, 오직 이 때에만 인간은 자신들이 문명화되었다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노르베르트 엘리아스, 1999: 431).

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줄은 긴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모든 의존과 기대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이렇듯 겸손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체험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체험이 반복되면서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2) 구원에 대한 열망

필자의 마음속에는 사람은 언제 구원받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즉 구원의 시점은 언제인가 그리고 그 구원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을 자와 영벌 받을 자가 구별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고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위해 부활한다(계 20: 12-13). 그리고 심판의 책에 자신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가득 적혀있는 수많은 선행과 악행, 태어나서부터 사망하기까지의 행적은 물론 모든 언행심사까지도 낱낱이 기록되어 그 하나하나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가 많아도 단 한가지의 죄로 인해 유죄가 선고된다. 이 세상의 어떤 선인이라도 일평생 단 한가지의 죄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단 한마디의 욕설도, 단 한 번의 음란한 눈길도 그의 유죄를 선고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마 5: 22, 28). 그리고 유죄에 대한 형벌은 유일하게 영원한 사망이다. 그것은 육체와 영혼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망의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 공포스럽고 저주스러운 순간에 어린 양 예수께서 생명의 책을 펴신다. 그 책에는 인간의 아무런 선행이나 악행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을 자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계 20: 12-15).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생명책을 펼쳐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심판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다. 지옥의 불 못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고통 받아야 할 자를 주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불러 구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모르고 태평하게 기다릴 수는 없다. 구원과 영벌은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너무도 엄청난 결과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최후 상태가 어떻게 될 지 무감각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해 미리 확신을 가져볼 수는 있다. 그것은 사망 직후의 시점에서이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의 이름은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영혼을 안식할 곳으로 영접하게 하신다. 천사들이 빛나는 마차를 타고 구원받을 자의 영혼을 영접하러 오는 것이다. 이러한 천사들의 영접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셨구나.'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 마귀들을 보내어 죽은 자의 영혼을 음부의 불타는 골짜기로 끌어가려 한다면 '아, 나는 망하였구나.'라고 탄식하며 절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가 생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든 관계없이 사후의 세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죽음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던 자들은 더욱 극렬하게 절망할 것이다. 적어도 음부에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생전에 복음을 거부하였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절망하게 될 것이다.

나사르가 낙원에서 안식하고 자신은 음부의 불꽃에서 고민하는 처지를 실감한 부자는 이 세상의 어떤 전도자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형제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눅 16: 27-30). 그러나 이미 사망의 세계에 들어온 이상 그곳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과 공포만이 있을 뿐이다.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사망 후로 연기하며 유유자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사후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사망 이전에 좀 더 일찍 확신하기를 원한다.

(3)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현실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 제자도의 길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길이기도 하다. 믿음 가운데 바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환경을 통해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빠져 절망할 때조차 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집이 경매당하고 살림살이가 차압되어 경매꾼들에게 생활의 터전이 짓밟힐 때에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것이다. 가족 중에 치유 불가능한 어려운 질병으로 사망의 슬픔을 당할 때에 그 슬픔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해야하므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다. 니느웨성의 구원을 위해 억지로 선교를 펼친 요나와 같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항변하며 기도할 것이다(욘 4: 9). 하나님께 동방의 의인이라 칭찬받던 욥도 그의 고통의 극치에 이르러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욥 42: 6).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욥의 심정과 같이, 그리고 요나의 마음과 같이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할 수가 없다고 하는 믿음만으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 때 그의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흐른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눅 22: 44).”고 기록하고 있듯이 절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피눈물의 강이 흐른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 15: 34)”라고 부르짖으셨다. 죽음의 절망스런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고통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이, 비록 아주 하찮은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씩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 작은 감사의 조건을 부여잡고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점

차 감사의 조건들이 이어지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러는 사이에 이번에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그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깨달음이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과 만족이 넘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쓰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우리 구원의 여부를 사망 전에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2.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

(1) '기독교 세계관'의 신국적 토대⁸⁾

이승구교수는 '기독교 세계관'의 신국적 토대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증생자의 세계관은 신국적 세계관일 수밖에 없다. 그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으로 한다(이승구, 2005: 90)."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1)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2) 그 관점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파악한 모든 결과물을 뜻하는 말이다(이승구, 2005: 255)."라고 하였는데, 필자는 그의 이 말을 그리스도인이(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그(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파악한 모든 결과물을 뜻하는 말로서 이해한다.

8) 성경에 충실하면 할수록, 철저히 일관성을 유지하면 할수록 기독교 세계관은 가장 신국적인 세계관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신국적 기초를 상실한 기독교 세계관은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이승구, 2003).

폴 히버트 역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의 중심에는 타락한 인간들을 죄의 결과와 그 현존으로부터 구출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야기와 인간 역사에 대한 견해를 그 중심으로 삼는다(Hiebbert, 2010: 568, 570).”고 하였는데, 필자는 존경받는 두 신학자의 의견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철저히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본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인간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부로 이해되어진다. 즉 인간이 주인공이고 인간의 활동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황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상세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유한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기가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상세한 지식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접근할 수는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집중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이렇듯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접근하는 것이 신국적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이며 신본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이다.

(2) ‘기독교 세계관’의 회복사적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면 신본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였다(막 1: 15). 예수님의 사역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땅에는 수많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와 타락한 종교가들의 위선 속에 고통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인간의 필요를 넘어서서 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본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적 관심을 따르는 것이다.

김승호교수는 그의 저서 [복음주의 선교신학에 대한 이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

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대적(사단)을 완전 패배시키고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김승호, 2008: 97).” 로 정의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은 깨어진 창조세계를 구원하시며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김승호, 2008: 91).”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지며 그것은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백성을 심판에서 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본주의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동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한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구속사(history of redemption)’라는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Greidanus, 1989: 88).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타락-구속으로 이해되는 구속사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집중하게 한다. 즉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조망하는 관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타락-구속의 역사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인간 세상의 창조 이전의 역사와 인간의 구속 이후의 역사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천사장의 하나였던 사단의 반역과 천사들의 삼분의 일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땅으로 쫓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계 12: 7-9).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커다란 혼란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히버트는 이에 대해 “이 완전한 세계가 타락으로 손상을 입었다. 하나님의

천사 중 일부가 그 분께 반역했고, 이 반역행위가 인간들에게도 퍼져서 그들도 공범으로 가담했다(Hiebert, 2010: 511).”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회복 하는 것이다. 즉 반역한 사단과 그에게 붙은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공통된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 싸움의 대적은 사단과 그에게 붙은 무리들이며 그 싸움의 끝은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본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에 의한 창조-타락-구속의 역사인 ‘구속사’를 포함하여(Greidanus, 1989: 90)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사(history of restoration)’에까지 그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의 회복

(1) 십자가 신앙의 회복

‘기독교 세계관’이 신본주의적 토대 위에 견고히 서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독교 가치관’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흔히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에 대해 ‘중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설명한다. 분명히 마가복음에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 45).”고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섬기시고 고난을 감당하시는 모범을 통해 제자들 스스로 섬김을 행하고 고난을 감당하

도록 가르치신 것이다(요 13: 15).

필자의 견해로는 마가복음이 철저히 세례에 관한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마가복음 1장에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막 1: 10-11).”고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시작하는 첫 장에서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막 10: 39).”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권세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의 모범을 가르쳐주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 번째 세례(the third baptism)’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완성되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 16).”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도록 당부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그들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다.

(2) 별세의 선언⁹⁾

목회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목자로서의 소명을 받아 오랫동안 집중적인 교육과 신앙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 그가 받은 소명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몸 바쳐 감당하려는 소명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소명을 앞에 두고 남다른 각오와 비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를

9) 별세의 선언은 이종표목사(한신교회)에 의해 확산된 ‘별세신학’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영적인 소망을 지향하는 선언이다.

지고 기쁘게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 10:29-30).”고 말씀하셨다. 목회자는 이미 주님이 주신 소명에 응답하는 날부터 자신의 모든 안위와 행복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헌신의 각오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회자의 별세선언은 집사, 권사, 장로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임직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떠나는 별세의 길이므로 이것을 세속적인 성공으로 여겨 축하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이 신앙의 박해 시에 순교의 순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무도 이것을 세속적인 성공으로 여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별세를 선언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을 구하기보다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보다 존경받기를 원하며, 권력을 얻기보다 은혜를 구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삼중신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단이 휘두르는 ‘세속의 삼중신기’ 즉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경하기를 힘쓰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스스로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4. 갱신된 ‘기독교 문화’의 확산

(1) 초문화신학(meta theology)의 공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특수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초문화신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가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두가 공통으로 소유하는 동일한 초문화적인 ‘기독교 문화’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체험을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을 통해 드러나는 '기독교 문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동일한 초문화신학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VanGemenen, 1993: 214-226). 복음을 위해 땅 끝에서 헌신하는 각국의 선교사들의 삶과 세계 각처에서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신앙고백은 비록 국가와 언어와 문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독교 신앙'으로 고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분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은 그 분들의 지역에서 초문화적인 '기독교 문화'를 확산 시키게 될 것이다(신국원, 2002: 205-206, 213).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 얻어진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한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좁은 의미의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좁은 의미의 '기독교 세계관'을 포함하여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는 '기독교 문화'의 모든 차원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기독교 세계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드러나는 '기독교 문화'는 마야호로 한국 개신교 교회 갱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교회의 일치

21세기를 맞이하여 교회의 일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영국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직제의 교환을 시도하고 있고 WCC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대화는 물론 타종교와의 대화에까지도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의 일치는 교리의 일치나 직제의 일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게 된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교단의 일치는 각 교단의 기존 질서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신교 안에서의 교리의 일치 또한 각 교파가 분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성경해석의 견해차 즉 교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각 교파의 교리 즉 교파의 설립근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교파의 일치 또는 교리의 일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10) 성서가 말하는 세계관은 인식의 변화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내포한다. 그것은 삶의 변화를 지칭한다. 갱신된 교회와 변혁된 사회적 삶의 방식은 지성이 아니라 삶, 더 정확히 말해서 순종하는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김기현, 2003).

할 것이다. 더군다나 교과의 분립이 명예와 권력 등 성직에 대한 개인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욱 더 일치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신앙고백의 일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단과 교리는 인간의 이해와 지식의 한계 속에서 태동하게 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은 어디까지나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신앙고백 위에 교회의 일치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더군다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뒤따르는 초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교단과 교과 및 교리의 차이를 뛰어 넘어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수십 개로 분열된 개신교의 교파는 물론 예배의 형식과 성경이해의 관점을 달리하는 기독교의 교단 간에 오직 동일한 신앙고백과 초대교회의 신앙을 따라 고유하고 독특한 각 종파의 예배형식과 성경이해의 틀을 유지한 채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동일한 초문화적 ‘기독교 문화’에 의한 교회의 갱신을 통해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IV.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한 적용 방안

1. 목회적 차원에서의 적용 방안

(1) 목회 후계자 양성

목회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목회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맡겨주신 양 떼를 돌보는 목회사역의 계속을 위해 성실한 후계자를 잘 양육하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 교회의 목회자들은 첫 번째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후계자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목회자가 은퇴할 때에 교회에 갑작스러운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임목회자가 후계자를 양육하지 않고 은퇴할 경우 교회에서는 후임목회자 청빙을 위해 고심하게 된다. 그리고 후임목회자를 청빙하는 일로 인해 전임목회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전임목회자의 퇴직금이나 은퇴 이후의 대우를 놓고 세력투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더군다나 전임목회자가 자신의 혈연으로 무리하게 후임목회자를 삼으려고 할 때에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사역 기간 중에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목회 철학과 목회방침을 함께 나누며 장시간에 걸쳐 이들과 함께 사역하며 양육하여야 한다. 이러한 후보자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나 사위 등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단지 10년 이상 20여년에 걸쳐 꾸준하고 성실하게 동역을 하고 양육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뒤를 이어 목회를 계속할 특정의 후보자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 후보자는 전임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목회방침을 답습하여 큰 혼란 없이 후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부목사로 불리는 사역자들이 목회의 후보자로 양육되지 못하고 한낱 목회의 보조자 또는 더 나아가 일개 월급쟁이 사역자로 취급되는 풍토에서는 제대로 된 목회 후보자의 양육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또는 더 나아가 신앙 안에서의 부자의 관계를 통해 보다 성숙한 목회자 양성의 과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잘 양육된 목회 후보자들은 비록 전임목회자의 후계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분립개척을 통해 또 다른 교회의 목회자로 훌륭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인의 이명을 통한 목회자의 권위 회복

교인의 수평이동과 관련하여 목사는 자신의 교회의 교인이 이동을 원할 때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양으로 존중하고 혹시라도 자신의 목회가 마음에 맞지 않아 교회를 옮기려고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이명 해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 적당한 교회를 찾아주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교인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담임목사의 목회가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정당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사해야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어는 교회에서 잘못을 저질러 권징을 피하기 위해 교회를 옮기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또는 사업상의 필요를 위해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교회의 직분과 관련된 갈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목사는 교인의 이명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단지 이명을 요구하는 이유가 선하지 못할 경우 목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이명서에 그 사연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인이 수평 이동할 때 목사들이 서로 간에 이명서를 전달하게 된다면 교인의 무분별한 이동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기도 하다.

(3) 목회와 재정의 분리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목회와 재정의 분리일 것이다. 교회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현금만으로 목회자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목회와 재정을 분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목회자의 사례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여유가 있게 된 때에도 목회와 재정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개신교 교회의 현실이다. 이른바 당회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운영에 관여하고 또 최종 결재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재정에 관한 영향력은 곧바로 목회자의 사회활동의 내용과 연관된다. 즉 교회의 재정을 활용하여 목회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회자의 사회적 출세의 욕구는 교회의 재정이 그 뒷받침을 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교회의 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 더 출석인원의 확장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인 불리기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회적 출세를 위한 방편으로 추구된다는 것이다. 정작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굳이 자신의 교회의 교인이 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교회가 중심이 된 지역전도 이외에 타 지역의 전도를 위한 협력이나 세계선교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국 교인들의 현금의 투입은 목회자의 사회적 신분을 확장하는 용도로 유용되고 교회의 전도는 목회자의 이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교인 불리기의 목적으로 이용되기에 이

른 것이다. 이러한 목회자의 현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교회의 목회와 재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의 사명은 기도와 말씀으로 교인을 양육하고 장로는 교인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하여는 목회자와 장로의 권한을 집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의 재정은 제직회 또는 제직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집행하는 것이다(김동호, 1999: 150-152). 여기에는 목회자나 장로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교인총회에 이를 보고하게 하면 될 것이다.

2. 교회 차원에서의 적용 방안

(1) 교회의 분립개척

적정한 교회의 규모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른바 교인의 수가 수십만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super mega church)가 등장하는 시대에 교회의 적정 규모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목회의 본래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고려할 때 반드시 대형교회(mega church)만을 지향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일만 명 이상의 교인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도 공간이나 예배장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무릎을 꿇을 수 없도록 좌석을 밀집하여 되도록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한 극장식 좌석이거나 관객석을 몇 개의 층으로 겹친 오페라하우스 또는 스타디움을 이용한 대규모 관객석을 활용하는 경우일 것이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로 시간을 나누어 복수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하여 여러 공간에 분할하여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채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녹화방송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사용방식은 기도와 예배라는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임시적이고 편법적인 것에 불과하다.

특히 목회의 본래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 교회의 적정규모는 공간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 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

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 목회자는 자신의 양 떼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사명이 있다. 한 사람의 교인을 위해 이름을 부르고 그의 사정과 형편을 기억하며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적어도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매일 아침 기도할 수 있는 분량은 360명이 한계일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매일 교인들을 위해 6시간을 기도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하다. 더군다나 교인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 한계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의 교인을 위해 단 5초의 시간을 배분하여 이름만 불러 기도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6시간동안 기도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4,320명에 불과하다. 목회자가 매일 6시간 동안 4,320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규모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1,000명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매일 한 사람의 교인을 위해 30초의 시간을 배분하여 두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목회의 규모는 240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 부목사를 활용하게 된다. 부목사는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의미 이외에도 그 이름 속에 목회자의 후계자 후보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부목사의 지위는 목회자의 목회를 보조하는 목회보조자의 의미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교구목사제도’이다.

교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회제도로서 교황 아래에 다수의 대주교를 두고 대주교는 다시 각 교구에 주교를 두어 지역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담임목회자 밑에 다수의 교구를 두고 부목사들로 하여금 각자의 교구를 담당케하여 담임목회자가 이들 교구목사들을 지배함으로써 제왕적 목회를 하는 것이다. 개신교 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교회인데 오히려 로마 가톨릭의 교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목사로 하여금 분립 개척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회의 선거제도의 성경적 적용

이른바 민주주의 제도는 주권재민의 원칙아래 구성원들이 자신들과 관련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다수결의 표결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방식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어 교회내의 모든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데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회에서도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주권이 구성원인 교인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민주주의 제도는 타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이며 이 신앙에 의해 교회의 주권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의사결정에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크게 모순된 것이다. 교회의 의사결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에 순종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구성원인 교인들의 집단적 요구나 의사의 표현을 넘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인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한 지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교회의 의사결정은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는 원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서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의사결정은 교회의 적정규모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들의 원만한 의사 교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회의 규모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교회의 직분을 놓고 선거를 할 경우에 다수결에 의존하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채용하면서 인간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교회 직분자 선거에 있어서 오히려 전원합의의 방식으로 후보자를 추천하여 '우림과 둠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른바 초대교회의 '제비뽑기 방식'을 회복시키는 것이다(행 1:23-26).

또한 임직을 계기로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목회자가 임직자들의 현

금으로 교육관을 건축하고 주차장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돈으로 직분을 얻은 이들이 자신들이 성취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목회자를 내쫓는 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 대한 임직에 앞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는지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은 임직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독교 가치관’을 갖게 할 것이며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들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겸손의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직자들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검증은 교회의 직분을 둘러싼 과열된 선거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교회의 전통적 예배와 문화전도(cultural mission)¹¹⁾의 구분

오늘날 기독교 복음에 관심 있는 비신자들이 쉽사리 교회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데 이것이 비신자들로 하여금 신자의 단계로 올라서기 전의 중간단계(step stone)인 문화전도의 개념이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에 문화 또는 복지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특히 비신자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전도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른바 열린 예배 또는 찬양예배에서 한 단계 더 내려와 문화행사 또는 문화강좌와 같은 문화를 매개로 한 신자와 비신자간의 친밀한 교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자들을 위한 예배의 공간(예배당 또는 예배실)과는 별도로 비신자들을 위한 문화선교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회의 예배당에서 비신자들을 초청하여 열린 예배 또는 문화선교행사를 할 수도 있으나 신자는 물론 비신자에게도 어딘지 자유롭지 못한 부담감을 주게 된다. 따라서 신자들에게 전통적 의미의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비신자들이 개종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도 마음 편하게 참가할 수 있는 문화센터와 같은 별도의 전도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센터 또는 크리스천센터는 신자들로 하여금 부담감 없이 비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비신자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11) Hiebert는 이에 대해 “복음전도를 위한 중립지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공원, 경기장 그리고 공연장과 식당과 연회장 그리고 상점과 쇼핑센터 그리고 개인가정과 캠프와 수영장 그리고 순례지” 등을 들고 있다(Hiebert, 1997: 239-244).

참석이 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다. 비신자의 입장에서 가족과 친구 친척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교회의 마당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센터에 참석하는 비신자들은 그 마음속에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고 기존 신자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의 신자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비신자들을 위한 문화센터와는 달리 기존 신자들에게는 보다 성숙한 예배환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교회는 전통적 예배를 회복하고 신자들의 영적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Tozer, 2006: 124-136). 또한 교회는 신자들에 대하여 권징을 통해 권위를 회복하고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야 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사 56: 7).”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 24).”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본질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¹²⁾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 예배의 감동이 되살아나게 되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 밖으로 뛰어나와 비신자들에게 기꺼이 전도할 전도의 동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전도를 통해 모여든 비신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렇게 전도된 비신자들이 거룩한 예배와 교회의 양육을 통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 권능 있는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비신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동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12) Hiebert는 전통적인 예배공간에 대해 “거룩한 장소” 또는 “거룩한 공간” 그리고 “성스러운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다(Hiebert, 1997: 245-246).

(4)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여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과 단절하여 홀로 살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의 의미가 있다.

이른바 ‘신학들’로 불리는 각종 사회운동의 중심에는 이 인간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담겨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소망을 두고 보다 정의롭고 깨끗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인 것이다. ‘여성신학’과 ‘해방신학’ 그리고 ‘흑인신학’과 ‘민중신학’등 이들 ‘신학들’의 중심에는 깨어진 창조세계, 더 나아가 금지된 에덴의 동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남아있다. 모든 압제와 억압과 수탈과 착취 그리고 핍박과 차별과 불의와 부정을 걷어내고 모두가 정의롭고 모두가 평등한 인간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다(김승호, 2007: 61-92).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과 파괴를 인정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들’이 과연 성경적인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힘을 기울여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도 생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찌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세상을 파괴하시는가하는 의문도 생긴다.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지구는 네 가지의 커다란 재앙으로 환경이 파괴되어질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계 8: 7-12, 16: 2-9). 급속한 사막화로 땅의 삼분의 일이 황폐되고, 해양이 오염되어 바다 생물의 삼분의 일이 죽으며, 식수가 오염되어 많은 사람이 죽고, 대기가 오염되어 종말이 오는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잠간의 여유시간을 영혼구원을 위해 활용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사회를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 잘못된 사회와 불량한 제도에 의해 고통 받는 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우며 이를 영혼구원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점은 '기독교 세계관'의 하나님 중심적 요소를 망각하는 데에서 비롯하고 있다. 즉 한국 개신교 교회의 최대의 스캔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대체한 것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차 현세적이고 기복적으로 변질되어 건물과 조직과 프로그램에 의존하면서 교회를 세속화하고, 관료화하며 중국적으로는 개 교회화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 개신교 교회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히버트가 제시한 문화의 여러 차원을 기독교 문화의 여러 차원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체험, 기독교 신앙,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원을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점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인격적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구원의 열망이나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대부분의 관심이 기복적이며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필요에 집중되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바탕이 되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게 의존하는 '기독교적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또는 신국적)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또는 현세적)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변질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부패와 무능을 반성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겸손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이 상실되고, 세상에서의 성공 즉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지상목표로 추구하는 현세 지향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패한 '기독교적 문화'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지배하면서 세속주의, 관료주의, 개 교회주의를 통해 오늘날 여러 가지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점들을 양산하게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창조-타락

-구속으로 이해되는 구속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회복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 지향의 ‘기독교 가치관’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 신앙의 회복과 별세의 선언을 촉구하고 이렇게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갱신된 ‘기독교 문화’의 확산을 통해 한국 개신교 교회 갱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한 적용 방안으로서 목회 차원과 교회 차원의 적용 방안으로 단지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으로서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해 포괄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따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갱신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한 종합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Bavinck, J. H. *The Church between Temple and Mosque*. 전호진 역 (1983). 『선교적 변증학』. 서울: 성광문화사.
- Elias, Norbert (1939). *Entwurf zu einer Theorie der Zivilisation*. (Vol.II). 박미애 역 (1999). 『문명화과정II』. 경기: 한길사.
- Greidanus, Sidney.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권수경 역 (1989).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서울: 학생신앙운동.
- Hiebbert, Paul G. (1985).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이중도/이현모/정홍호 역 (1996).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조이선교회.
- _____ (1994).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김영동/안영권 역 (1997).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서울: 조이선교회.
- _____ (2008). *Transforming Worldviews: An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How People Change*. 홍병룡 역 (2010).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서울: 복 있는 사람.
- Stott, John. *Our Guilty Silence*. 김성녀 역 (2001). 『존 스토티의 복음 전도』. 서울: IVP.
- Tozer, A. W. (1950). *The Divine Conquest*. 권혁봉 역 (1975). 『진짜 크리스천』. 서울: 생명의 말씀사.
- _____ (1964). *That Incredible Christian*. 이용복 역 (2004).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서울: 규장.
- _____ (1997). *Tozer on Worship and Entertainment*. 이용복 역 (2004). 『예배인가, 쇼인가』. 서울: 규장.
- _____ (1997). *Worship: The Missing Jewel*. 이용복 역 (2006). 『이것이 예배이다』. 서울: 규장.
- VanGemenen, Willem A. (1988). *The Progress of Redemption*. 안병호/김의원 역 (1993). 『구원계시의 발전사II』. 서울: ESP.
- 김동호 (1999).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울: 규장.
- 김승호 (2007). 『선교의 상황화』. 서울: 토라.
- _____ (2008). 『복음주의 선교신학에 대한 이해』. 서울: 예영B&P.
- 김은수 (2001).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신국원 (2002).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오덕교 (1998). 『종교개혁사』. 경기: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이승구 (2005).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 정성욱 (1999).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서울: 부흥과 개혁사.
- 정숙희 (2007).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서울: 흥성사.
- 진중권 (2007). 『호모 코레아니쿠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현승건 (2008). 『나가사키의 십자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기현 (2003). “기독교 세계관 비판과 변혁 모델의 다양성.” 『신앙과 학문』 8(2).
- 양희송 (2003).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 비판적 성찰과 역동적 혁신을 위해.” 『신

앙과 학문』. 8(2).

이승구 (2003).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들과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 『신앙과 학문』. 8(2).

최태연 (2003). “벼랑 끝에 선 기독교 세계관.” 『신앙과 학문』. 8(2).

이만열 (2011). <http://www.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79>. (검색일 2011.12.3) 복음과 상황 2011. 9.29일자 ‘한국교회, 자기 신학이 있는가?’.

ABSTRACT

A Study of the Application of 'Christian Worldview' for the Reformation of Korean Protestant Churches

Seung Geon Hyun(Nagasaki Martyrdom Memorial Church, J-Mission)

'Christian worldview' is said to be a unique viewpoint through which a Christian looks into the world. Here I study of 'Christian worldview' that can be applied for the reformation of Korean protestant churches following the four steps of culture, which are religion (or conviction), worldview, values, and life (or culture), suggested by Paul Hiebert.

'Christian worldview' is based upon the experience in God who is alive and the conviction of salvation. But Korean protestant churches have some problems in the fact that they have forgotten the point of God oriented 'Christian worldview'. As 'Christian worldview' is decayed into human oriented 'Christian worldview', Heaven oriented 'Christian values' are disappeared, by which Christian tries humbly to continue his way of cross with the confession of his decomposition and decapability and in the prayers for the grace of salvation. And "Christian cultures" are also decayed in the secular mood depending upon building and organization and programs and are going to fall into the secularism and bureaucratism and church-babelism at last. These decompositions of Korean protestant churches have been preceded heavily without any hope to be cured, and they are going to be fallen into the religious syncretism and pluralism ending with the corruption.

The human history is understood as a part of the history of God in the God oriented 'Christian worldview'. That is, God and all of His nation are the only goal but not the human and all the human activities. In the end of this world God's nation shall be restored and more over it will be fulfilled by the judgement and salvation. God oriented 'Christian worldview' is root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judgement and the

salvation of God. Christian who grows to have a strong “Christianity” through the personal experiences in God and becomes to have God oriented ‘Christian worldview’ will be armed strictly by the Heaven oriented ‘Christian values’. ‘Christian culture’ which is emerged through these Heaven oriented ‘Christian values’ shall share the only meta theology throughout the world.

Key Words: reformation of church,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values, history of restoration, meta theology